



수경피부과의원, 전주사람 에 후원금·물품 전달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은 29일 수경피부과의원(원장 박수경)이 약 400만 원 상당의 후원금과 후원물품을(주변의 어려운 이들을 위해 사용하길바라며 기탁했다)고 밝혔다. 수경피부과의원은 지난 7일 완산구 서신동에 개원을 했다. 이날 기탁한 후원금과 후원물품은 개원 축하로 받은 물품백(20kg 15포 등)과 축하금(약 300만 원)이다. 박수경 수경피부과의원 원장은 "병원 개원을 맞아 지역사회에 나눔을 실천해 준 박수경 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면서 "기부해주신 물품은 도움이 필요한 전주사람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주사람복지재단 '전주사람'은 △전주형SOS긴급지원사업 △사랑나눔간병비지원사업 △우리동네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후원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시민은 전화(063-281-0080)로 문의하면 된다. /김윤상기자



진봉면 주민자치위, '새만금바람길' 알리기 앞장

갑제시 진봉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곡규관)는 29일 주민자치위원들 15명과 함께 '새만금바람길 걷기'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새만금 바람길은 대한민국에 유일하게 지평선과 수평선을 함께 보며 걸을 수 있는 대표적 마실길로, 진봉면 행정복지센터 - 망해사 - 심포항 - 거전마을을 잇는 10km 구간이다. 진봉면 주민자치위에서는 새만금 바람길을 조성할 때부터 애착을 갖고 유채꽃 심기,바람길캐비 설치등 명품길 만들기에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으며, 망해사 심포항 바람길 등 진봉면 관광자원을 널리 알리고자 이번 '새만금바람길 걷기' 행사를 추진하였다. 곡규관 위원장은 "어렸을 적 추억의 장소이자, 진봉면의 자랑인 새만금 바람길이 널리 홍보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진봉면 관광지와 바람길에서 힐링의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오승영 진봉면장은 "새만금 바람길 활성화에 앞장서 주시는 주민자치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주민자치위원들과 뜻을 모아 행정에서도 진봉면의 보석과 같은 공간이 널리 알려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남원시 향교동, 마을계획단 워크숍 개최

남원시 향교동은 남원시공동체지원센터와 27일~28일 동주민 마을계획단,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민자치회, 통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을계획 수립을 위한 강좌와 분과별 모둠 토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워크숍에서는 첫날 고신면의 사례로 주민자치와 민관협력에 대한 이해를 돕고, 둘째 날은 주민 스스로 우리 마을의 특성과 현황, 어려움에 대해 격의 없이 고민을 나누고 마을의제를 꺼내는 한편 그 해결책을 공유하며 마을을 바꾸기 위한 방안 등에 논의했다. 이번 마을계획단 워크숍은 복지마을 분과를 추가해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특징이며, 지역사회 주민들이 느끼고 생각하는 복지문제와 다양한 복지요구를 공유하기 위해 추가되었다. 복지마을 만들기 분과에서는 마을 비전세우기, 마을 자원 발굴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 의제 도출을 위한 토론 의제 분류와 분석, 의제 발표순으로 진행 됐고 제안 의제로 여론을 수렴해 문제 해결, 공동체 활동, 경관 부문으로 의견이 도출 되었다. 지양근 향교동장은 "전진 지방자치시대가 되기 위해서는 지역과 마을이 살아야 한다"며 "향교동에 꼭 필요한 소중 한 밑거름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농촌현장을 활력이 넘치는 곳으로”

전북농협·전주대, 영농철 농촌일손돕기 실시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과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지난 27일부터 오는 7월 1일까지 5일간 고창군 상하면과 진안군 진안읍에서 농촌일손돕기를 펼친다. 이번 일손돕기는 지난해 전북지역 대학교 총장협의회 전북농협과 전북도청 체결한 농촌 인력지원 활성화 협약에 따라 실시됐다. 일손돕기에서 전주대학교 학생 250여 명은 농산물 수확, 김매기, 마을청소 등 농촌현장에서 필요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게 된다. 정재호 본부장은 "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현장을 직접 경험하며 노동의 가치를 되새기고 농촌을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며 "전북농협도 지역대학생들과 함께 농촌현장을 활력이 넘치는 곳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농협은 앞으로도 영농철 농촌일손돕기 부족 해소 등을 위해 지역 대학생 유관기관, 기업체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지속적으로 일손돕기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윤상 기자

전북대 수의대 교수진, 발전기금 1억2500만원 기부



전북대학교 수의과대학(학장 안동춘) 16명의 교수들이 개교 70주년을 기념해 발전기금 1억 2500만 원을 기부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기금에는 안동춘 학장을 비롯해 강형섭·김범석·김인식·김종훈·박병용·박상열·설재원·엄재구·윤학영·이기창·장형관·전유별·조호성·태형진·허수영 교수 등이 함께했다. 이에 전북대는 지난 28일 안동춘 학장 등을 대학본부로 초청해 발전기금 기증식을 갖고 감사패를 전달했다. 안동춘 학장은 "지난 70년 동안 세계 100대 수의과대학에 진입한 전북대 수의대의 명성을 후대로 이어가고, 우리 학생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큰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 위해 교수들이 나섰다"며 "동문 및 교수들의 마음이 우리 학생들에게 큰 힘으로 환원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1951년 10월 8일 문을 연 전북대 수의대는 1955년 39명의 첫 수의사를 배출한 이후 학사 2263명이 졸업, 국내 수의학계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정은성 기자

진안군 정천면협의체, 해충퇴치사업 추진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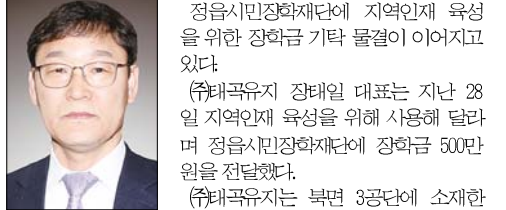
진안군 정천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김선학, 민간위원장 안인재, 이하 협의체)는 28일 정기회의를 열고 주민들의 보편적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첫 번째 안건은 농촌지역의 노후 주택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해충으로부터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해충퇴치사업으로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사업추진에 동의하고, 위원 및 마을 이장으로부터 대상지를 추천받아 현장실사를 통해 9월말 이내에 사업을 완료하기로 했다. 두 번째 안건은 진안군사회복지협의회 좋은 이웃들 사례 회의에서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재료비 50만원을 확보해 놓은 저소득 장애인가구에 대한 도매 봉사 지원 건으로, 위원들 사이에 이점이 있었으나, 저소득가구의 지원지원을 위한 공동목표를 위해 7월중 도매 봉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7월부터 매 주 화요일에 위원이나 이장이 어르신 3명을 모시고 식사 하는 '행복한 식사'를 추진하기로 계획하였으며, 후원 음식점은 '월령택' (대표 박희



김제시자원봉사센터, 안전손잡이 미끄럼 방지매트 설치

김제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최병철)는 29일 김산동 교월동, 성덕면에서 안전손잡이 안심시공이 사업을 진행했다. 해당 사업은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이사장 김광호)주최 '시·군센터 자원봉사 지속프로그램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6월부터 10월까지 활동예정인 나상 고위험 독거노인 및 장애인 세대를 가가호호 방문하여 안전손잡이와 미끄럼 방지매트를 설치해 자택 내 생활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에는 소상공인 봉사단(회장 김형문)이 사업의 첫 시작인 2019년부터 함께하고 있으며 안전물품 설치 뿐 아니라 수혜자들을 만나 안부를 확인하고 기타 소소하게 수리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함께 해결해주는 등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정읍 태곡유지, 지역인재 육성 장학금 기탁



정읍시민장학재단에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기탁 물품이 이어지고 있다. (주)태곡유지 장태일 대표는 지난 28일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정읍시민장학재단에 장학금 500만 원을 전달했다. (주)태곡유지는 북면 3공단에 소재한 축산 폐기물 처리 업체로 축산물 가공 잔재물과 동물성 유지류, 동물성 잔재물 등 폐기물 종합 재활용을 운영하고 있다. 장 대표는 2019년부터 매년 꾸준히 장학금을 기탁하며 지역인재 육성에 앞장서고 있다. 장태일 대표는 "우리 지역 우수 인재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장학금을 기탁 했다"며 "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소중히 사용해달라"고 말했다. 같은 날 정읍시청 세정과 박종덕 팀장은 2022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되어 받은 시상금 20만원을 장학금으로 전달했다. 박종덕 팀장은 지난 2019년과 2020년에도 규제혁신아이디어 공모에서 받은 시상금을 장학금으로 기탁한 바 있다. /정은성 기자



전주 침례교회, 따뜻한 이웃돕기로 착한교회 선정

전주 원도사에 이웃과 사랑을 나누려는 온정의 손길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전주시 덕진구 인후2동 전주 침례교회(목사 김요한)는 인후2동 주민센터(동장 이진숙)에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매달 3만 원씩 꾸준한 정기기부를 하기로 해 29일 착한교회에 선정됐다. 김요한 목사는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소외계층이 느끼는 경제적 어려움은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몇 배는 더 클 것"이라며 "앞으로도 봉사나 나눔 실천으로 이웃과 함께 상생하고 발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한전 순창지사, 6.25 참전유공자 찾아 정(情) 나누기

한전 전북본부 순창지사 사회봉사단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29일 6·25 참전유공자의 가정을 찾아 따뜻한 온정을 전하고 감사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순창지사 사회봉사단원들은 보훈청 추천 우수 참전유공자 3가구를 직접 방문해 쌀, 화장지, 세제 등 생필품을 전달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한전 순창지사 사회봉사단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여 주신 참전유공자분들을 위하여 봉사활동을 하게 되어 정말 뿌듯한 하루였으며, 앞으로도 지역주민과 상생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사회적 가치 구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김제시 사랑의 열매 봉사단, 저소득층 김치 지원

김제시 사랑의열매 봉사단(단장 최효길)은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 달라며 김치 50박스를 신봉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이병호)에 전달해 훈훈함을 전했다. 지난 29일 김제시 사랑의열매 봉사단 회원들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관내 저소득층의 식생활 개선을 위해 직접 담근 김치 50박스를 전달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을 위한 나눔과 봉사활동에 적극 동참할 것을 다짐했다. 최효길 단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소외된 이웃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며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지속적인 봉사와 헌신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